하이패션 脚光

가 죽

◆실크못지않게 유연한 스웨드 블라우스들. 왼편은 빌·블라스의 1천3백90달러짜리, 오른편은 로랭의 7백78달러짜리.

지금까진 코트로나 만들어져오던 가죽이 다양한 하이패션의재료로 각광을 받고있다. 특히 스웨드가 인기·패션잡지 보그는 「현대는스웨드 패션, 이계절의 스타는 스웨드」라고 찬사를 던지고있다.

고도의 기술로 뻣뻣하고 벙벙한 짐승가죽이 종이처럼 얇게, 버터처럼 보드랍게 처리되었으며 갖가지 빛깔의 염색도 손색이 없다.

그러니 평상복은 물론, 비키니에서 이브닝드레스까지 가죽의 애용도는 상당히 넓다.

1976년 컬렉션에서부터 점차 가죽작품을 증가시켜온 이태리디자이너 지오로지오·아르마니는 『가죽의 강점은 섹스어필이다. 같은 짐승껍질이라도 모피는 그저 죽은 짐승을 입고 다니는 격이지만 가죽은 몸에 밀착되어 제2의 피부구실을 하기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사실상 요즘 디자이너들은 스웨드와 레더를 실크나 면이나 모직처럼 「직물(Fabric)」로 부르고 취급한다.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검정 가죽드레스.

(스웨드는 짐승가죽의 꺼끄러운 안쪽으로 1884년 스웨덴에서 장갑원단으로 처음 사용했다)

스웨드가 겨울옷은 물론, 얇은 여름옷으로 사용될만큼 얇고 윤기있는 질감을 갖게 된것은 무두과정에서 새로운 윤활유와 화학약품 덕분. 이 윤활유로 인해 강도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죽이 얇게 처리될수 있다고 한다.

주로 남아프리카산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가죽원단」은 강한 빨강, 연한 핑크, 밝은 초록, 블루, 노랑, 살구빛, 옥색, 보라…… 어떤 색깔도 실크나 면직 못지않게 선명하게 나온다.

가격은 비싸다.

가장 성공적인 가죽패션디자이너의 하나로 꼽히는 캐롤·혼의 스웨드티셔츠 값이 2백10달러로 그중 싼것. 그의 스웨드드레스는 3백22달러다.

랄프·로랑의 폭넓은 스커트는 1천달러, 이브·생·로랑의 가죽자켓도 1천달러, 파리디자이너 클로드·몬타나의 수놓은 가죽자켓들은 2천4백달러라는 가격에도 불구, 뉴욕서 일하2주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미디자이너중 가죽패션의 부흥사로 알려진 칼빈·클라인의 튜닉드레스는 6백50달러선.

번시여사의 단골디자이너 빌·블라스의 블라우스는 무려 1천3백90달러나 호가한다.

그러나 싼것보다는 비싼것이 잘팔린다는 것이 소매상들의 이야기.

한백화점의 사장은 『디자이너진이 처음나왔을때 누구나 한벌 갖기원하듯이 가죽옷도 여성이 누구나 한벌쯤 갖기 원한다. 더구나 가죽이니까 투자쯤으로 생각, 비싼것을 택하는 경향이다』라고 말한다.

사실 잘처리된 가죽옷은 10~15년은 입을수있다.

칼빈·클라인도 같은 스웨드셔츠를 지난5년동안 입어오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종이처럼 얇게, 버터처럼 보드랍게··

注射로 避姙

「데포—프로베라」유럽서 人氣

완벽한 피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여러가지 피임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그중 가장 희망적인 피임방법은 최근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포-프로베라.

아직 미국에서는 FDA(식품의약관리국)의 허가를 받지않았으나, 이 약은 3개월에 한번씩 주사로 주입되어 임신을 방지할수 있다.

데포-프로베라의 성분은 프로제스테론이라는 여성호르몬으로써 여성의 난소로 부터 난자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활을 한다.

데포-프로베라는 영구피임을 제외한 어떤 피임방법보다도 『과적이라는 것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피임약의 부작용을 종종 불러오는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있지않다는 것이며, 또 3개월마다 한번씩 주입되기때문에 매일의 피임약복용을 깜박깜박 잊는 여성들이나 피임기구의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적합하다.

◆데포·프로베라는 주사한번으로 3개월간 피임이 보장된다.

물론 이 약에도 약간의 결점은 있을수 있다.

어떤 여성은 체중이 늘고 주사를 맞을때에 피임약과 마찬가지로 의기소침하게 되기도 한다.

월경의 불규칙성도 문제이다.

데포-프로베라를 주입받은 여성의 20%가 한달후 부터 월경불순이었으며, 2년후에는 75%가 월경불순으로 고생하고있다.

이 같은 월경불순은 에스트로겐을 주입하므로써 규칙적으로 만들수 있다.

또 하나 결점은 주사를 끊은뒤, 모든 여성이 곧 임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절반의 여성만이 6개월내 임신되었다. 그러나 18개월뒤에는 모든 여성이 임신 가능했다.

미국에서 완전히 사용허가를 얻으려면 데포-프로베라 복용후의 장기간 안전성이 증명되어야만 하지만, 그 동안 몇몇 의사들에 의해 사용되고있다.

3개월에 한번… 영구피임외엔 效果的
월경 불규칙성등 한두가지 결점 지녀

豪華邸宅다듬은 부쉬 레건夫婦에 뒤질세라

◆자녀들은 다 장성하여 집을 나가고 개 C·프레드군만을 데리고 사는 부쉬부통령부부의 한가로운 시간.

1년전, 워싱턴의 펜실베니아 Ave, 1600번지의 주인이 바뀌었을때 거기서 멀지않은곳 34가와 매서추세츠 Ave 가 교차되는 코너의 저택도 새주인을 맞았다.

먼데일 가족이 이사 나가고 부쉬가족이 들어온것이다.

펜실베니아 Ave의 백악관주인에는 물론 비교할수도 없지만 부통령 조지·부쉬도 7만9천1백25달러의 연봉외에 7명의 해군사병들이 시중드는 공관혜택을 누리고 있다.

1893년 해군 장성들을 위해 지어진 방16개짜리 「제독의 집(Admiral's House)」이 부통령을 위한 세컨드 패밀리 거처로 정해진것은 1974년부터.

온실과 테니스 코트를 갖춘 12에이커 대지규모로 백만장자 부쉬도 익숙해지는데 얼마간 시일이 걸렸을 정도로 호화저택에 속한다.

슬하에 5남매가 모두 장성하여 제각기 따로 살기때문에 부쉬부부의 단하나 함께 사는 부양가족은 8살짜리 스파니엘개 C·프레드군.

카터일가와 취미가 달라 백악관 내부를 온통뜯어 고친 레건부부에 지지않게 부쉬네도 내부를 말끔히 재단장했다.

먼데일부통령부부가 박물관에서 빌려다 걸었던 현대미술작품들은 모조리 거두어내고 부쉬취향에 맞춰 농가와 바닷가풍경을 담은 미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으로 대치했다.

매주 1천명의 방문객을 맞는 아래층은 양탄자, 커튼, 가구등을 전부바꾸었으며 이에 소요된경비 18만7천5백달러는 텍사스 석유부자들의 개인희사금으로 충당되었다.

퍼블릭리빙룸은 중국식의자, 중국식램프등이 놓여졌는데 이는 부쉬의 13개월간 중공과건근무를 상징하는것.

1주일에 몇차례씩 손님식사대접을 치루는 부통령공관 디너에 지난 1년간 레건 대통령부부가 참석한것은 한번뿐.

바바라여사는 일단 다른손님초청때 미리 시험해본 레시피로 준비한 닭요리를 대접했다면서 『우리가 거기 갔을때는 레건댁의 카레요리를 맛보았지요』라고 전하기도 했다.

1980년 예선때는 공화당대통령후보 지명전서 라이벌로 맞붙어 팽팽히 싸우기도 했던 레건일가와 부쉬일가는 『요즘엔 한마음으로 따뜻하게 뭉쳐있다』고 바바라여사는 말한다.

하지만 부쉬부부가 지금거처에서 3마일 다운타운쪽 백악관으로 이사하는 꿈을 쉽게 버릴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바바라여사는 『여긴 참 편합니다. 백악관은 이렇게 편하지 못할꺼예요』라고 말했으며 부쉬부통령은 멀리 국회의사당이 바라보이는 창밖을 응시하면서 『이곳이 워싱턴에선 가장 전망이 좋은곳이지요. 난 이동네가 좋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회피했다.

◆부통령공관. 온실과 테니스코트를 갖추고 있는 12에이커 대지위에 방16개짜리 저택이다.

먼데일이살던 副統領공관「제독의 집」
부쉬 취향맞춰 巨額들여 家具모두바꿔

컴퓨터 結婚

"신랑, 신부 키스 하세요"

현대는 바야흐로 컴퓨터시대. 컴퓨터가 결혼식주례목사역할까지 담당하게되었다.

캘리포니주 서니베일의 유니버설라이프교회주식회사 론·자에니쉬목사(31)의 파트너는 애플 플러스 컴퓨터.

「헬로우, 저는 애플목사입니다」라고 상냥하게 자신을 소개한다.

「애플목사」가 즐기는 일무는 결혼주례.

단2분밖에 안걸리는 이컴퓨터결혼식에서 「애플목사」는 몇가지 질문을 하고 성혼을 선언한 다음엔 신랑에게 신부에게 키스하라는 말까지 해준다.

『컴퓨터목사 애플은 우선 이름부터 물어보지요』

컴퓨터광이 자에니쉬목사는 신이나서 설명을 한다.

『그다음엔 적당한 때 신랑신부가 「네」하고 대답하도록 되어있어요』

컴퓨터가 보통목사와 다른것은 신랑과 신부서약때 흔히 쓰는 「I do」를 못쓴다는것.

반드시 「yes」라는 키를 눌러야만한다.

「예스」가 아닌 「노」든지 「메이비」든지 선언한 다음엔 신랑에게 신부에게 키스하라는 말까지 해준다.

『컴퓨터목사 애플은 우선 이름부터 물어보지요』

컴퓨터광이 자에니쉬목사는 신이나서 설명을 한다.

『그다음엔 적당한 때 신랑신부가 「네」하고 대답하도록 되어있어요』

컴퓨터가 보통목사와 다른것은 신랑과 신부서약때 흔히 쓰는 「I do」를 못쓴다는것.

반드시 「yes」라는 키를 눌러야만한다.

「예스」가 아닌 「노」든지 「메이비」든지 그밖에 다른키를 누르면 컴퓨터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래도 「예스」란 답이 안나오면 『당신들의 결혼은 성립이 안됐읍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나게 된다.

또 신랑신부는 아주 정확해야한다.

헤이디다이아나처럼 신부가 긴장, 신랑이름을 잘못대면 이 정확명료한 「애플목사」는 결코 성혼선언을 해주지않는다.

자에니쉬목사는 이 컴퓨터결혼식은 원래 귀머거리를 위해서 고안된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귀머거리 신랑신부들이 많지못하자 일반에게도 오픈된것이라고.

「애플목사」에 의해 첫커플이 짝지워진것은 작년 발렌타인데이때. 합법성을 위해 자에니쉬목사도 참석했었다.

그러나 「손님」은 별로 많지 못하다. 의식은 너무 싱겁게 끝나는 반면 5백달러나되는 기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

그러나 자에니쉬목사는 『모든것이 빠르고 간편하지요. 꽃도, 사진도, 아무것도 필요없으니까요』라고 두둔한다.

"저는 애플牧師입니다"主禮까지… 2分에끝나
컴퓨터가 묻는말에 키잘못누르면 成婚 안돼

개업박두

브로드웨이 나이트 클럽

BROAD·WAY NIGHT CLUB

악단장 : 준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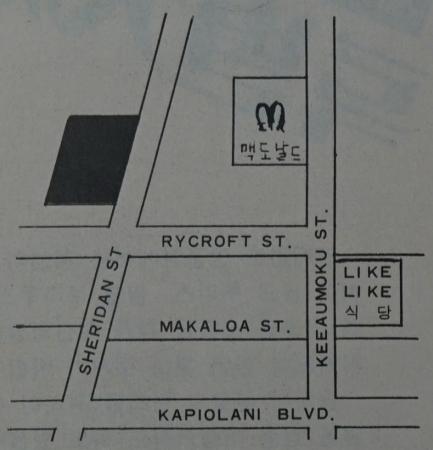
감미로운 음악과 다정한 분위기를 살린 나이트클럽 「브로드웨이」가 2월12일부터 문을 엽니다.

댄싱을 즐기며 피로를 푸실수 있는 「브로드웨이」는 주대를 저렴하게 책정, 봉사키로 하였아오니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준 최

OPEN : 4 PM ~ 4 AM
밴 드 : 10 PM ~ 4 AM

☎ 947 — 2121/2125
(지배인 : 문승천)



818 SHERIDAN ST.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